

돌아가는 여행

감일고등학교

김민경

할머니와 나는 매일 공항으로 여행을 떠난다. 할머니가 봉투에서 김이 나는 찐감자를 꺼내 내게 건넨다. 그것을 받아 먹으며 나는 스크롤을 내려 웹툰을 본다. 할머니는 교통센터에 함께 앉아 있는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감자를 나눠 주며 대화한다. 벌써 3주째, 나는 공항으로 등교하고 있다. 할머니는 이제 4개월 차다. 4개월 동안 매일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공항에 오는 할머니는 여행을 오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나는 그 표현에 동의할 수 없었다. 내가 하는 것은 그저 일탈 같은 것에 가까웠다. 여행은 돌아갈 곳이 있을 때 쓰는 말이고, 나는 돌아갈 곳이 없으

니까.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서 따돌림을 당
 했고, 덕분에 내내 혼자 지내야 했다.
 맛별이라 일로 바쁜 부모님은 나에게 대
 해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 자신들을
 피곤하게 하면 화를 낼 뿐이었다. 집도
 학교도 내가 갈 곳이 아니었다.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자니 돈도 돈이지만
 음료 한 잔 시키고 아침 시간부터 교
 복 입고 앉아있는 나를 어떻게 볼까
 부끄러워서 갈 수 없었다. 부모님 몰래
 학교에서 조퇴한 뒤 갈 곳이 필요했다.
 그때 아빠가 엄마에게 할머니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 노인들이 여름에 덥다
 고 공항에 바글바글 모여드는데 할머니
 가 요즘 거기 가 있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듣고 공항에서 하루를 보내도 괜
 찻겠다 싶어 다음 날부터 조퇴 후 공
 항으로 향행싸다.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
 었는데 사람이 모여드는 곳을 찾아다니

다 보니 교통센터에 있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어릴 땐 친했지만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사이가 조금 멀어졌어서 어쩐지 어색하게 느껴졌다.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는지 물어보시면 어찌리. 그러나 그런 내 생각이 무색하게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삶은 계란을 나눠줄 뿐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조퇴한 뒤편 공항으로 갔다. 거기서 하루종일 핸드폰을 하거나 드라마를 봤다. 거기엔 나같이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이 많아서 눈치가 덜 보였다. 사람들이 왜 이 시간에 있냐 물어보면 할머니가 알려 하지 말라고 쳐내줬기에 편한 것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할머니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지, 왜 하필 공항에 있는지 궁금했다. 할머니는 왜 맨날 공항에 오는 거야? 그렇게 물었더니 할머니가 답했다. 여행을 오고 싶어서. 여긴

외로운 노인들이 많잖니. 집은 적막해서,
 날 반긴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러는
 예수 너도 여행을 온 거 아니니? 나
 는 고개를 내저었다. 내가 하는 건 그
 저 일탈에 불과했다. 할머니는 무겁게
 가라앉은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 보
 았다.
 그땐 어쩐지 부끄러워져서 더는 공항
 에 가지 말까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찾
 아봐도 내게 여기보다 더 나은 곳은
 없는 것 같았다. 찐감자를 씹으며 주변
 을 둘러봤다. 직원들 시선이 이쪽을 향
 해 있었었다. 아무래도 탐탁치 않게 보는
 시선이 여기에도 있긴 했지만 그것만
 빼면 다 좋았다. 그렇지만 저녁이 되면
 이곳을 두고 집으로 돌아가야겠지. 그곳
 은 내가 돌아갈 곳이 아닌데도.
 저녁이 되어도 교통센터 안은 바글거
 렸다. 잠까지 자고 가는 노인들이 많은
 탓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아무리 내게 관심이 없더라도 집에 없
 는 것 정도는 분명 알아차릴 것이 분
 명했기 때문이었다. 집에 가기 전 손을
 씻으러 화장실로 가는데 화장실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노친네들, 나이 먹고
 갈 곳이 없다 해도 그렇지. 민폐라는
 자각도 없나. 어우, 난 저렇게 안 늙을
 래. 순간 몸이 굳었다. 나를 향한 말은
 아니었는데도 꼭 나를 향한 말같이 느
 껴졌다.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
 나. 그래도 이곳이 꽤 좋아졌었는데. 이
 곳이 내 돌아갈 곳이 아닌가, 그런 생
 각도 했었는데. 기분이 울적했다. 교통센
 터로 돌아가 집을 챙기는데 할머니가
 물었다. 무슨 일 있니? 고개를 내저으
 려는데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 거짓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를 걱정해주는 얼굴은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대
 답 대신 질문을 던졌다. 할머니는 제가
 왜 맨날 여기 오는지 안 궁금해요?

할머니가 눈을 깜빡였다. 네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거라 생각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여기도 제가 있을 곳은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는 잠시 직원들 쪽을 보더니 내 손을 잡았다.

“모두가 우릴 반겨줄 순 없어. 당장 외국에만 가도 그렇잖니.”

“하지만, 그러면 대체 제가 돌아갈 곳은 어딘데요?”

돌아갈 곳 같은 건 없어, 혜수야.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는 거야. 떠나고 싶은 곳이 있는 것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놓았다.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였다. 나는 그 길로 집에 왔고, 한동안 공항에 가지 않았다. 반 아이들도 부모님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아서 적막한 시간들이 이어졌다. 그때 하룻길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공항에 오는 것을 여행

을 온다고 표현했던 할머니가 떠올랐다.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거라니.
 어쩐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저 멀리서
 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가고 싶다, 공항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돌아가고 싶어. 적막한 집이
 나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학교가
 아니라 조곤조곤한 할머니들의 말소리,
 찐 감자와 삶은 계란 냄개가 풍기는,
 모두가 조금씩 외로움을 품고 있는 그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충동적으
 로 버스에 올라탔다. 자리에 착석해 창
 밖을 봤다.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다.
 버스 안에서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꼭 여행을 가는 것처럼 들떴다.
 내게 그곳은 이제 떠나고 싶은 곳이
 아니라 돌아가고 싶은 곳인데도 그랬다.
 할머니도 그랬을까? 공항으로 오는 길
 에, 어쩐지 흐릿한 하늘과 까만 점이

되어 날아가는 새들과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차들을 보면서, 가고 싶다고 생각
 했을까. 떠나고 싶다고, 어찌면 돌아가고
 싶다고. 나는 생각했다. 여행을 떠난 뒤
 다시 돌아가는 것 또한 여행의 일부라
 고. 그제서야 할머니의 표현을 조금이나
 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를 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돌아가는 여행을 하는 중이
 라고.